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톡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116	218	160	490
(주 예수 바라보라)	(주여 당신 종이 여기)	(하느님의 어린양)	(십자가에 가까이)

제 1독서 | 창세기 22,1-2.9.10-13.15-18

화답송 |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좌) “나 참으로 비참하구나.” 되뇌면서도 나는 믿었네.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

○(우) 아, 주님, 저는 당신의 종.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당신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

○(좌)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주님의 집 앞뜰에서,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

제 2독서 | 로마서 8,31-34

복음 환호송 |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 마르코 9,2-10

영성체 후 기도 |

주님, 영광스러운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감사하며 비오니,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상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의 복음, <마르코 9,2-10>

Jesus took with him Peter and James and John and led them up a high mountain where they could be alone by themselves. There in their presence he was transfigured: his clothes became dazzlingly white, whiter than any earthly bleacher could make them. Elijah appeared to them with Moses; and they were talking with Jesus. Then Peter spoke to Jesus: 'Rabbi,' he said 'it is wonderful for us to be here: so let us make three tents, one for you,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He did not know what to say: they were so frightened. And a cloud came, covering them in shadow; and there came a voice from the cloud, 'This is my Son, the Beloved. Listen to him.' Then suddenly, when they looked round, they saw no one with them any more but only Jesus.

As they came down from the mountain he warned them to tell no one what they had seen, until after the Son of Man had risen from the dead. They observed the warning faithfully, though among themselves they discussed what 'rising from the dead' could mean.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잔장이라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Short Reflection>

The beauty of the Transfiguration overwhelmed them and brought about immense joy. This experience marked a step in the disciples' preparation by Jesus when they would have to recognize this same beauty of boundless love when He would be crucified and His face disfigured. Simon Peter wished to prolong the wondrous Transfiguration experience, but Jesus does not allow it, as there is a risk His light could be reduced to 'a magical moment' or 'passing sentiment.' Instead, the experience grounds them in their faith, the reality of life, and the journey that must be embarked upon.

그때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Christ is the light that orients our journey like the pillar of fire for the people in the wilderness. Jesus' beauty does not alienate his disciples from the reality of life, but gives them the strength to follow Him all the way to Jerusalem, all the way to the cross.





오늘의 교리 -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레위 11,44-45; 1베드 1,16) ‘너희는 거룩하니, 거룩해져라.’(골로 3,12; 1테살 4,3-7; 2테살 2,13 참조) 이것은 거룩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룩함은 하느님의 선물이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다는 것을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교회는 흠 없이 거룩하지만 불완전하게 거룩하고,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지만 ‘불완전하게’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충만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선포한 <교회헌장> 5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문헌에서 거룩함은 카리타스(caritas), 곧 사랑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일 뿐 아니라 거룩함 자체이시고, 하느님과 관련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은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닮음에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의 본질과 닮음에 있겠지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은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아드님을 내어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행적, 삶, 약하고 고통받고 소외되고 죄

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받아들임,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십자가 죽음에 당신을 내어놓으심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즉, 요한계 문헌이 종종 말하듯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을 닮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헌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떠한 신분이나 계층이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교 생활의 완성과 사랑의 완덕으로 부름받고 있다.”(40항) 교회 안에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등등, 다양한 생활 방식과 직무를 수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은 ‘하나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곧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 여정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이렇게 크고 많은 구원의 수단을 갖춘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생활 신분이나 처지에서든,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성덕[거룩함]에 이르도록 저마다 자기 길에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다.”(교회헌장 11항)그러니 사는 방식도, 하는 일도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 곧 거룩함을 향해 가고 있으며, 그 길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통하여 사랑을 향하여” 가는 길!(교회헌장 44항)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목표이자 방법입니다

- 최현순 데레사

(평신도 신학자,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오상의 비오 성인’의 기도문

예수님, 제게 늘 머물러주소서. 저는 너무 나약해서 자주 넘어지오니,
저와 함께 계시어 저를 강하게 해주소서. 예수님, 제게 늘 머물러주소서.
주님은 저의 빛이시니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는 암흑 속을 헤매게 되나이다.

공지 사항

1. 사순시기 고해성사 권고

사순시기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느님 앞에 겸손되이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하느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며,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초대는 고해성사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치유와 화해의 성사는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거나 심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은총으로 가득 차게 하는 자리입니다.

2. 사순시기 고해성사 순서 안내

고해성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옆에 적혀있는 소공동체반 순서대로 성사를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소공동체반 이후에 성사를 보는 사람이 없다면, 신자 분들 누구나 고해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평일에 고해성사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주임 신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시기 고해성사 - 소공동체 반 순서>

- * 2월 25일(주일) - 전체
- * 3월 3일(주일) - 마태오반
- * 3월 10일(주일) - 마르코반
- * 3월 17일(주일) - 루카반
- * 3월 24일(주일) - 요한반

3. 3월 공동체 식사 및 간식 나눔 안내

- 3월 3일(주일) - 공동체 식사 나눔 (루카반 준비)
- 3월 31일(주일) - 부활대축일 공동체 식사 나눔 (사목회 및 소공동체 전체 준비)

=> 3월 17일(주일)은 성주간(Holy Week)을 앞둔 사순 제 5주일이기에, '간식 나눔'을 건너뛰습니다. 부활대축일을 기다리며, 기쁜 사순시기 보내시길 바랍니다.

| 미사 참례자 수 |

2월 11일	유아·청소년: 38명	성인: 76명
2월 18일	유아·청소년: 24명	성인: 53명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2월 25일)	양홍석 베드로, 안영규 필립보
다음주 (3월 3일)	이상명 다니엘, 이재희 루시아

|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2월 25일)	마태오반
다음주 (3월 3일)	요한반

| 우리들의 정성 | (2월 17일 ~ 2월 23일)

봉 헌 금	\$341			
교 무 금	\$460			
권모순	김정수	남궁영근	손재호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조성희	주정자

| 기도 지향 |

*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을 위해
*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를 위해
* 예비자교리 중인 박서영 자매님을 위해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